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회 회의록

회의명	제24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회		
일시	2020. 1. 28.(화) 16:00	장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이전오, 조준모, 서수정, 전승호, 김중환, 김예지, 이동희, 심왕섭 / 전병우, 김영호, 김원갑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 ※ 신완선 기획조정처장, 박경민 과장, 정성창 직원(전략기획.홍보팀), 최정훈 팀장, 박봉균 주임 (예산기획팀) 배석		
불참위원			

1. 개 회

- 이전오 대학평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전병우, 김영호, 김원갑 평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평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 24차 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전차 회의록은 붙임의 회의록을 목독하고,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평의원들에게 재차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신완선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조처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을 설명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학칙은 교육 수요자를 위한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현재 각 기관에서 분권화되어 이런 수요에 대응해 나가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하며, 다만 본부 행정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학과 단위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다. 덧붙여 본부차원에서 거시적 방향성과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수요자들이 느끼는 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자들이 디테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다.
- 기조처장이 학칙 등 대학 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큰 구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소비자가족학과가 소비자학과로 개편되고 학위명은 변동없이 문학사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 시장분석, 빅데이터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입장에서는 문학사 보다는 다른 학위로 받는 것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 기조처장이 학위명은 학과에서 의결하여 본부에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짐을 설명하고, 학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이 성균교양(중점·균형)교육으로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다.
- 박경민 과장이 문이과통합 교육에 대비하여 교양과정 개편을 실시하였고,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개편에 따라 캠퍼스 교차수강 시행, AI 과목 필수 이수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도전학기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다.
- 기초처장이 도전학기 T/F팀을 운영 중이며, 도전학기에 운영될 교과, 비교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며, 조만간 학생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 회장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인사캠 학과 사정에 맞게 인사캠 도전학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학생 의견이 중요할 것 같으니 학생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3품 인증제도 개선에 대하여 3품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AI, SW 분야가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되어 학생들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되는 면도 있지만 취득이 어려워져 학생들이 졸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우니 3품을 이용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배출 졸업생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기초처장이 3품제 개선 취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자는 것이고, 학생들이 취득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3. 2020학년도 예산 편성(안)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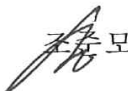






- 의장이 2020학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하 예산팀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을 설명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등록금 수입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며 학부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이고, 등록인원도 보수적으로 추정하다보면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하다.
- 예산팀장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실제 재학인원의 3개년 평균으로 추정하고, 추경예산에는 실제 등록인원이 반영됨을 설명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직원급여에 대한 추정근거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사무직 직원은 현재 재직인원 기준이고, 신규채용인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2019년 대비 2020년 직원급여는 감소하고, 직원제수당은 증가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더불어 교원급여가 증가하면 교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직원급여가 오히려 감소된 것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보여진다고 하다.

- 예산팀장이 직원제수당에는 교육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9년 추경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하였고 2020년 당초예산에는 평소 예산금액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직원급여는 2019년에 일시금 지급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의장이 향후에는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주요사항은 하단에 설명을 표기하도록 요청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삼성학술기금연구비가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19년 추경금액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었으며 2020년 예산은 신규로 지원하는 금액만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삼성학술기금연구비 위원회에서 올해 예산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연구비 배분 방식에 있어서 연구결과의 효용성 차원을 생각하기를 제안드린다고 하며, 본 사업의 취지가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신규과제를 지원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배분 방식을 재평가해보기를 요청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대학의 수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설립한 인재교육원의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인재교육원은 2019학년도 삼성 위탁교육을 통하여 20억원 수준의 수입이 있었고, 2020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전체교수회의 등의 기회를 통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내실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의 창의력도 중요한데 현재는 관리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보니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학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 기조처장이 학교 전체 차원의 도전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산단전입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정부 지침이 산단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줄여나가는 추세임에 따라 연구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산단회계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2020년에 94억 적자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0년에는 신축 건축비가 반영됨에 따라 94억원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적립한 감가상각기금을 활용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학교는 항상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학생지원예산 중 교육환경개선 6억원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단과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예술대학 학생들이 실습공간 마련과 관련한 요청이 꾸준히 해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예산팀장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외국인 등록금이 4년간 꾸준히 5%씩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학생을 위한 예산지원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 예산팀장이 그 부분은 외국인유학생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교비 예산을 외국인학생 지원을 위하여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장학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한 외국인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다.
- 김예지 평의원이 최근에 외국인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생활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카운슬링센터 등에 외국인을 전담하여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기를 바란다고 하다. 또한 우리대학의 외국인유학생은 중국학생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학평판에 걸맞게 동아시아를 벗어나 유학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하다.
-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2020학년도 예산 편성(안) 자문을 종료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7:3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2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이전오	 (인)	조종모	 (인)	서수정	 (인)
전병우	<위임>	김영호	<위임>		
김승호	 (인)	김중환	 (인)		
김예지	 (인)	이동희	 (인)		
김원갑	<위임>	심왕섭	 (인)		